책자형 선거공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을선거구

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불평등을 뒤엎을 첫걸음
가슴이 뛴다!

민중당

7

천안유일진보후보

이영남

현) 민중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을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7	민중당	이영남	여	1976.08.16. (만43세)	노동자 (교육공무직)	경북전문대학교 식품가공과 졸업	(현) 민중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41,647	141,647	없음	고지거부	없음	병역의무 없음	장남:기타 (2020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 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5,102	0	0	해당없음
후보자	374	0	0	
배우자	4,728	0	0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1대99 불평등한 한국사회

상위 1%가
전체 소득
44.8% 점유

상위 1%의
상속액은
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상위 1%의
불로소득은
월급쟁이
수익의 318배

20대 80에서 1대 99의 사회로 전락해버린 한국사회

상위 1%가 전체부의 30%를, 10%가 전체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30대 재벌이 곳간에 쌓아둔 사내보유금이 950조원이며, 주택을 50채 이상 보유한 소수 특권층이 2,000명 가까이 되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이 만연한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가 가능합니다.
서민들에게 대출을 늘려주거나 찔끔찔끔 복지 혜택을 주는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재벌을 비롯한 1% 소수 특권층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자산을 환수하여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민중당이 제시하는 사회

- **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 / 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 청년 이직 준비 급여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 / 성범죄처벌 강화 / 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예비군제도 폐지

천안 진보후보 이영남과 민중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정당투표는

민중당

정쟁뿐이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거대 양당의 싸움에 제 구실을 하지 못 할 것이 뻔 합니다.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거대 양당이 정신 차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 1번으로 내새운 정당은 민중당 뿐입니다. 진짜 농민을 비례 2번으로 내세운 정당도 민중당이 유일합니다.

" 월세살이 17년에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집을 샀습니다. 80%가 대출로 30년을 상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가계부채로 허덕입니다.

특권층 1%가 가진 재산, 상위 10%가 가진 부동산, 노동자 농민의 고혈을 짜서 취득한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대대로 세습하는 이상 불평등 또한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계급적 입장이 다른 특권 국회가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불공정 사회를 갈아엎어 봅시다!

노동이 존중 받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

보편적 복지가 당연한 나라를 위하여!

자주평화에 앞장 선 정치인, 이석기의원은 석방되어야합니다

" 자주는 우리 스스로 자기 발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질문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자주입니다. 〈중략〉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자산재분배 정책과 같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

- 2019.12.01 이석기의원 옥중서신 중